

#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단단한 시 인식

곽재구·이승욱·심재상의 신작시집을 읽고

장은수  
문학평론가

한국 시는 너무 젊고, 한국의 시인들은 쉽게 늙어버린다. 나는 언제나 그것이 불만이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 젊은 날에 유신 독재와 광주 항쟁을 겪었고 이제 “세상의 흐름에 미혹되지 않을” 나이에 이른 비슷한 연배의 시인들인 곽재구, 이승욱, 심재상의 신작 시집에는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맛이 있다. 곽재구의 시들은 지나치게 복고적이며, 이승욱의 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재상의 시들은 무척 관념적이어서 마음의 이끌림을 약화시키는 약점이 있지만 그 대신 그들의 시에는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적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 돌이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미적 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 자연주의적 인식

곽재구의 시들에는 “동무여 밤 늦게 길을 걷다가/ 먼 마을의 불빛처럼 귀에 내려앉는/ 그대의 맑은 목소리”(《보선화》)가 가득하다. 그 목소리의 주체들은 남도의 소리 명인 조공례, 양홍도에서 현대의 소리꾼 박은옥, 신호범, 서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 목소리가 나고 자라는 장소는 “아랫목에 밥그릇 묻고/ 된장국 내음 갯바람 날리던/ 한평생 뼈를 녹인/ 그리운 그 땅”(《만가》). 그러니까 조선의 산과 들이다. 곽재구의 ‘조선’은 “황토길 삼백리/ 꽃은 피고/ 새는 울고/ 강물은 한없이 맑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되비추이는 곳// 산과 강과/ 길들이 어우러진 그곳에/ 주름살 착한 사람들/ 마을을 부리고/ 들메꽃처럼”(《꽃은 피고 새는 울고》) 살아가는 곳이다.

여기서 주목할 시어는 ‘꽃은 피고 새는 울고’라는 상투적인 시의 구절을 감싸고 있는 ‘황토길’, ‘맑은 강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좋다’라는 생태학적, 자연주의적 인식,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아메리카가 상징하는 자본화한 세계에 대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적 인식에 이끌리고 있는 이 시어들에는 비자본화한 세계에 대한 은밀한 그리움과 거기에 마음을 되비추어보는 반성적 시선이 숨어 있다.

그래서인지 곽재구의 시들은 《사평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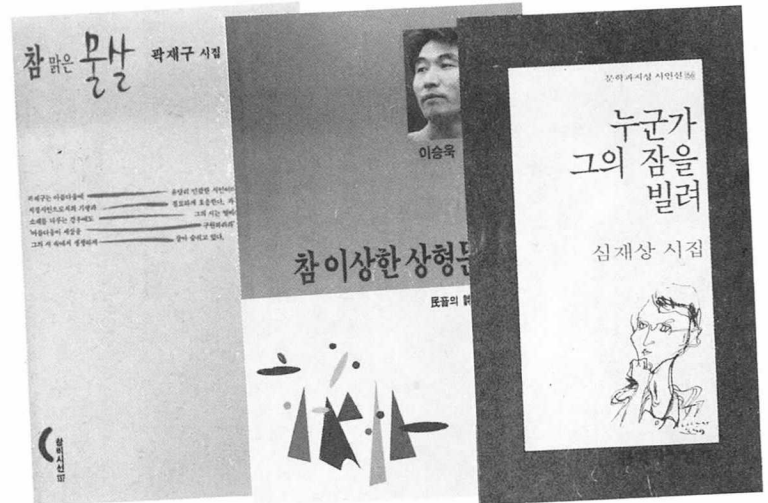
서》가 떠올리는 이미지의 풍경화를 벗어나 “조선 매화 향기처럼 아름다운 조선 소리”(《조공례 할머니의 찢긴 윗입술》)을 닮아가고 있으며, “백련사 동백나무 숲그늘”의 “조선새들”(《백련사 동백나무숲 속에는》)의 지저귀고 비슷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시적 인식이 우리 마음의 거문고로 울릴 때까지는 아직 좀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 선연한 추억의 무늬

이승욱의 시에는 마음의 관절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저 따스한 가을 햇볕/ 언덕을 넘어서/ 구르면 금세 부서질 것 같은/ 달팽이 몸을 끌고/ 이리저리 다닌 길”, 그러니까 “덧나기만 하는 내 상처”(《가난했던 우리 집》)를 돌이키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환기시키는 “물골이// 상할 대로 상한 꿀벌건/ 널빤지들이/ 똑같은 꼴로 지겹게 포개져”(《나른한 봄잠》) 잠자다 “흐들흐들 공중으로 잠적하고 말”(《풀》) 것 같은 지금 이곳의 삶을 드러내는 정직한 시선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승욱의 시적 공간은 “선연한 추억의 무늬”(《기다림》)와 “맑고 구겨진 지폐”(《그의 老年은》) 같은 삶의 인식 사이에 놓여있다.

그 추억의 무늬는 “한 개의 조가비 같은 방과 다섯 명의/ 눈매 고운 식구와 장롱 옆의 몽땅 비짜루와/ 비짜루 위의 아버지 사진과 장독 뒤의/ 부끄러운 분꽃이 아무래도 안 지워질/ 그리운 모국어가 되어/ 따뜻한 아랫목을 둘러 흐린 밤을/ 지새는 것을”(《가난의 추억》)과 같은 뛰어난 풍경을 낳아 마음을 흔들고, 그 인식은 “우리 집 앞 집의 저 능소화가/ 담장 위에 불그레하게 사지를 늘어뜨리고/ 여름 한철 내내 똑같은 꽃만 피워대는 것이/ 내겐 너무 지겹고 방만한 作亂 같다”(《능소화 상표》)는 깔끔한 시적 주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승욱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있’이라는 시어이다. 이승욱에게 삶이란 있나무이며, 살아가는 것은 있을 하나하나 떨구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있들이 헛거물 거꾸집 같다니. 사실 그가 바라는 것은 “있을 다 떨군 있나무 하나/ 너무 선연한 있들을 펼쳐준다// 어찌



다 내 눈에 붙들린/ 아름다운 나무, 잎의 추억들”(《그의 노년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있을 다 떨군 후에도 선연한 있들을 펼쳐주는 것, 아름다운 잎의 추억들을 남기는 것이다. 이 작은 소망은 너무 소박하고 작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소박하고 작기에 공감의 가능성도 아주 적을 위험성이 있다.

## 나를 찾아가는 나

심재상의 시적 인식은 “부재하는 나 자신에게 나는 언제나 말하는 부재일 뿐, 부재하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부재로서의 나는 결국 말했던 나, 존재하는 나에 불과할 뿐, 말하고 있는 나는 입을 여는 순간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버리는 나의 이 더듬거림이 무섭기 한량없다.”(《그러니까 이제 나는》)에 응축되어 있다.

이상 소설의 한 구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는 ‘나를 찾아가는 나’와 ‘부재하는 나’라는 두 개의 시적 대상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동사는 ‘부재하다’이다. 왜? 나를 부재하는 나로 만든 것은 내가 “나는 당신의 탈을 뒤집어쓰고 그만/ 나 아닌 나, 당신에게 빠졌”(《탈을 뒤집어쓰고》)기 때문이다. 나는 나인데 당신의 탈을 뒤집어쓴 까닭에 내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나를 찾아가야겠다는 것이 심재상 시의 이미지가 움직여가는 첫번째 동선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인칭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부재로서의 나”, 일인칭이다. 나는 부재하

는데 그것은 내가 본래 부재였기 때문이며, 내가 부재하는 것은 부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부재에서 출발해 부재의 존재성을 찾는 이상한 형이상학, 부재의 존재성을 찾아야겠다고 말하는 부재라는 낯선 이미지를 불러 마음을 이끌어간다.

동사 “말하다”는 그의 시를 이끄는 두번째 움직임이다. “나”, 그러니까 “부재”는 말하고, 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심재상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말하고 있는 나는 입을 여는 순간 이미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재상 시를 이끄는 세번째 움직임은 ‘아니다’이다. 부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순간 부재의 존재성은 부재한다는 것은 자아의 확정불가능성, 피비우스적 인식의 띠를 만들어낸다.

‘부재하는 나’—‘말하는 부재’—‘존재의 부재’라는 클라인씨의 병에 갇힌 심재상의 시는 점점 더 깊이 형이상학의 어둠 속을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도 훨훨던이나 릴케에 비견되는 시의 꽃이 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재상 시의 관념은 아직 이미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의 이미지는 상투화한 것이 많다. 나는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의 앞날을 기대한다. ❖

참 맑은 물살/창작과비평/3500원  
누군가 그의 잠을 빌려/문학과지성/3500원  
참 이상한 상형문자/민음사/3500원